

# 농업과학기술 기반 개도국 빈곤 해결

### 농진청, 세계은행과 농업개발협력 공조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세계은행(World Bank)과 농업분야 기술교류 및 협력 사업을 추진해 개도국의 빈곤 해결 및 식량안보를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지난 5월 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농식품 기술혁신 분야 연구 프로젝트 공동 수행과 전문가 교류, 개도국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공동 운영을 협력하기로 했다.

농촌진흥청은 양해각서 체결로 세계은행과 한국 농업 소개 책자 발간 및 아프리카 기아해결을 위한 식용근종 활용, 우즈베키스탄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토양양분관리 프로젝트 참여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계은행은 식용근종을 이용한 아프리카 기아해결 사업을 기획 중이다. 한국과 유럽 국가들의 곤충산업 및 연구개발 현황을 파악해 구체적인 개도국 지원 사업을 제안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한국 곤충산업의 정책과 육성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지원한다.

또한 세계은행 한국녹색성장신탁기금은 현재 추진 중인 우즈베키스탄 농업현대화 프로젝트에 농촌진흥청의 농경지 토양양분관리 기술 지원을 위한 공동 훈련을 제안했다.



### 한-키르기스 농업기술 상호협력 강화

지난 2일 농촌진흥청은 키르기스 공화국 농업식품개발부와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올해 하반기 KOPIA 키르기스스탄 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양해각서 체결로 한국과 키르기스 공화국 간 농업기술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농촌진흥청은 키르기스 공화국에 우리나라의 선진 농업기술을 전수할 계획이다. 사진 왼쪽부터 디나라 케멜로바 주한 키르기스 공화국 대사외 김경규 농촌진흥청장.

향후 양 기관은 공동 세미나를 개최해 구체적 협력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선진화 된 농업과학 기술을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는 신공국과의 농업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새만금사업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율 높인다

### 전북도·전건협 전북도회 서울 소재 대형건설사 방문

전북도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김태경)는 도내에서 시행 중인 새만금사업에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3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남광토건 본사와 강남구에 소재한 두산건설 본사를 방문했다.

전북도와 건협 전북도회는 현재 새만금전주고속도로(4공구)를 담당하고 있는 남광토건과 새만금전주고속도로(8공구)를 담당하고 있는 두산건설 업무 실무자들에게 지역업체에 대한 홍보를 하고 관련 자료를 전달하면서, 도내 대형건설현장에 지역업체 참여 및 하도급률 제고를 강력 권고했다.

이 자리에서 강경덕 전북도 지역정책과장은 "전북도민 모두가 각별히 관

심을 보이며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새만금사업에 도내업체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며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는 곧바로 긍정적인 경제효과로 이어지므로 코로나19로 모두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상호협력으로 상생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전북도와 건협 전북도회는 지난 5월 21일 계통건설을 시작으로, 동월 27일에는 롯데건설과 고려개발을 방문해 지역우수업체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앞으로도 새만금 내 건설공사, 세계잡버리부지 조성공사 등 도내 대형사업장 주관 건설사들을 방문해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또한 6월 중에는 14개 시·군 건설공사 현장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건설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협조들

당부할 계획이며, 지역건설업체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전북도의 하도급 전담부서와 건협 전북도회는 전북지역업체의 홍보와 하도급참여를 제고를 위해 도내에서 민·관 공사현장을 맡고 있는 대형건설사의 본사 방문을 '19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도내 2,600여개 전문건설업체를 대변하는 전건협 전북도회 김태경 회장은 "전라북도의 하도급 전담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도내 대형현장에 지역업체의 참여율이 점차 증가하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이로 인해 도내 건설업체들도 희망적인 기대를 갖고 있다"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불철주야 애써주심에 감사드리며, 협회도 전문건설업체와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 소상공인 위한 착한 선결제 동참

### 전북중기청, 도내 29개 중기 지원기관협의회 개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 이하 전북중기청)은 3일 지역내 29개의 중소기업 지원기관 및 협·단체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3회 전북중소기업지원협의회(이하 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지원협의회는 전북중기청이 매월 첫째주 수요일에 개최하는 정례회의로서 기관별 지원정책과 현안·이슈를 공유하고 지역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애로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지역 내 대표적인 중소기업 정책소통기구이다.

그간 코로나19로 사회적·생활속 거리두기에 따라 1월 이후 내차례 지원협의회를 서면으로 개최한 바 있으나, 전북지역의 코로나19 상황이 다소 안정되었다고 판단해 이 달부터는 방역지침을 준수한 대면 회의로 개최하게 된 것이다.

협의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고용안정금 지원제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교육지원, 수출기 업 세정지원 등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한 각 기관별 지원사업의 추진상황 설명과 협업방안을 논의하고 관련기관과 협·단체의 적극적인 협력과 홍보를 요청했다.

특히 글로벌청년벤처협회 회원사로 사무용 의자를 만드는 '미동체어' (대표 이재현)와 여성경제인협회 회원사로 유기농 된장을 제조하는 '황수연전통식품영농조합법인' (대표 황수연)으로부터 기업소개와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두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2주 이내에 자금, 인력, 수출, R&D 등 기관별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기관 실무협의체'를 별도 가동해 지원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지원기관과 협·단체 기관장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조기에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합심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유익한 소통의 자리였다"고 전했다.

한편, 오는 회의에 앞서 참석한 29개 지원기관·협단체는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지역업체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착한 선결제 운동' 동참을 결의하는 협약식을 맺었으며, 착한 선결제 운동을 지역경제가 침체를 벗어나는 시점까지 지속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 /김윤상 기자

###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착한 임대인 대출지원

#### 최대 5000만원 지원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전북 지역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완화를 위해 금융권 단독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해 상반기에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으로 인하여에 따라 최대 5,000만원이 지원되며 금리는 전북도에서 2년간 3%를 지원받아 0% 무이자이다. 또한 원금은 5년간 원금균등분할로 상환하면 된다. 이번 대출은 전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은 전라북도 소상공인희망센터에서 실시한다.

농협은행 전북본부는 현재까지 5,967건, 1,525억 원의 코로나19 관련 자금을 지원했으며 코로나19 피해업체 전용상담창구, 신속 여신지원반을 운영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도내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윤상 기자

## 비만 억제 활성 갖는 균주 기술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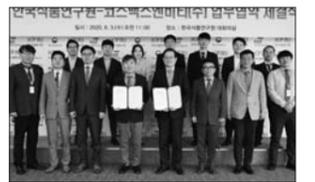
### 식품연, 코스맥스엔비티와 협약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박동준 이하 '식품연')은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기업 코스맥스엔비티(주)(대표이사 이은종)와 3일 식품(연) 대표의실에서 비만 억제 활성을 갖는 균주(AO356)의 기술 이전과 연구사업 진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술이전 소재인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AO356 균주는 식품(연) 이소영 박사 연구팀에서 장내미생물 정보 기반 헬스케어 연구 수행을 통해 도출했다. AO356 균주는 Lactobacillus 계열의 프로바이오틱스이다.

프로바이오틱스란 적정량 섭취 시 인간에게 건강상의 유익함을 제공하는 미생물로 대표적으로 락토바실러스, 비피도박테리움 등이 있다. 항비만, 항아토피, 면역증진 활성 등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가능성은 균주마다 상이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연구진에 따르면, 고지방식이 비만 동물 모델에 AO356 균주를 10주간 섭



취시킨 결과, 대조군에 비해 25%의 체중 감소, 혈중 중성지방 감소, 인슐린 저항성 개선 효능이 확인됐으며, 이는 지방조직에서의 에너지 소비 촉진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연)은 기술이전 기업인 코스맥스엔비티(주)와 공동으로 AO356 균주의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위한 대량생산 체계 구축 및 인체적용시험 등의 산업화 연구를 진행한다.

식품(연) 박동준 원장은 "연구원의 우수한 기술을 민간 분야로 확산시켜 국내 기능성식품산업의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출연(연)과 기업의 바람직한 협업모델을 구축하는데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